

# “어느 곳에서도나 주인이 되어라”

인간소외현상과 수처작주(隨處作主)

고도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역기능의 하나인 인간성 상실, 인간성 매몰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인간화 경향 중 문제되는 것이 인간소외(人間疎外) 현상이다.

인간소외에 대한 개념 규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간소외 현상이란 인간행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조직, 기계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화폐 제도는 분명히 인간 행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화폐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배를 받게 되는 인간이 화폐의 노예가 되어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단절을 가져오며 반목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돈의 노예가 된 인간은 심지어 돈 때문에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는다.

산업사회는 기술집약적인 사회라고 한다. 각종 기계 발달은 인간에게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 모든 기술에 익숙할 수 없다. 제품을 만드는 한 과정에서 한 가지 기술에만 숙련되어 있다. 즉 생산과정 흐름의 한 부분에만 관여하며 기

제도·조직·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 특히 청소년들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계의 움직임에 따라 기계가 요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대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직에 있어서도 인간은 소외되어 있다. 한 조직체에는 위계적 질서가 있으며 이 위계적 질서는 꼭 짜여져 있다. 이러한 질서정연한 조직체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분명히 소외되어 있다.

소외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 무의미감, 무능감, 고독감, 자기소외감(自己疎離感) 등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 소외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자라는 청소년은 소외의 경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보다 끈끈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인간으로 길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현재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

김중서박사가 쓰는

## 불교와 교육

10



그림·이준석

다. 가정에서의 소외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 하나는 과보호성 때문에 나타나는 소외현상이다. 핵가족제도 하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고 무능감, 무력감, 무의미성에 빠지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특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열쇠소년(key boy), 열쇠소녀(key girl)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소외되고 있다. 다량교육 획일교육 아래 청소년들은 교사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문제를 교사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사와 인간적인 따뜻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다량 교육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나타나는 소외현상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의 시험제도에 의하여 소외되고 있다. 그 공부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오직 점수 따기에만 골몰한다. 불필요한 지식인

### “청소년을 성인의 종속체로 보지 말고 주체성을 갖고 자유자재하도록 교육”

풀 알면서도 시험에 나오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량교육시험제도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학생들은 분명히 시험제도의 노예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회에서의 소외현상은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시사회는 익명(匿名)의 사회이다. 대문밖을 한 발자국 나오면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청소년들이 어떤 행동을 하여도 이를 제지하거나 충고하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청소년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청소년을 사회의 후보자로 보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이다.

청소년을 사회의 후보자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은 내일을 이끌어 갈 준비에 있으며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성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성인의 종속적 실체이다.

이에 반하여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며 청소년은 성인의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독립적 실체인 것이다. 즉 청소년은 그들 나름대로 성인과 다른 지적 호기심, 예술적 취향, 정서, 도덕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 실체를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대부분의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성인의 종속적 실체로 봄으로써 청소년을 소외시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목적감, 방향감을 상실하고 무의미감 무능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아정체감(自我正體感) 상실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모두가 소외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인간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수처작주(隨處作主)의 가르침이다. 즉 <임제록(臨濟錄)>에 있는 임제의현(臨濟義玄)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일구(一句)이다.

우리 나라 선학사전에는 “어느 곳에서도 주체가 된다면 선곳이 다 참되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사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청정하면 깨달음 그 자체라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나가 무리(中村元)의 <불교에 대사전>에 따르면 수처작주란 “어떤 경우에 처하여도 항상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어떤 것에도 불잡히는 바가 되지 않아 항상 자유자재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소외 현상이란 결국 개인의 주체성을 다른 그 무엇에 빼앗겨 주인의식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던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존중감(天天下唯我獨尊)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주인의식,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주인의식, 국가에서는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이 무목적감, 무방향감, 무능력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성(自我正體性)을 확립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 확립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불법(佛法)에 의하여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 생활불교용어



‘재(齋)’는 ‘제(祭)’와 발음도 비슷하고 의식형태도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삼가며 맑게 하기 위한 의식이고, 제는 죽은 이를 위해 혼백이나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들이는 의식이다. 따라서 ‘재’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특수 의식이다.

‘재’의 어원은 범어 ‘우파바사타(upavasatha)’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본래 ‘승려의 식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것이 승려에게 식사를 공양하는 의식, 또는 그와같은 의식을 중심으로 한 법회를 뜻하는 것으로 전용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재’라고 하며, 성대한 불공(佛供)을

### 재(齋)

마음을 맑게하는 불교만의 의식 49제·우란분재·영산제 등 총칭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로는 49제, 우란분재(烏鵲盆齋), 영산제(靈山齋), 예수재(須修齋) 등이 있다.

또 ‘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삼가며 맑게 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계(戒)와 통한다.

사람이 마음을 가지런히 하거나 맑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계율이기 때문이다. 계에는 살생·도둑·음행·거짓말·술을 금지하는 오계(五戒)와 기에다 꽃다발을 쓰거나 불에 향을 바르거나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서 구경하지 말 것, 눈고 넓고 크게 잘 꾸민 평상이나 좌석에 앉지 않을 것,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 것 등을 포함한 팔계(八戒)가 있다. 팔계를 ‘팔재계’라고도 한다.

8재계는 출가승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재가신도에게는 지키기가 힘들다. 따라서 한달에 며칠을 제일(齋日)로 정해 집에 거가나 집에서라도 팔재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생겼으니, 매달 초 8일, 14일, 15일(보름), 24일, 29일, 30일 등 6재일이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 감·로·심·장·회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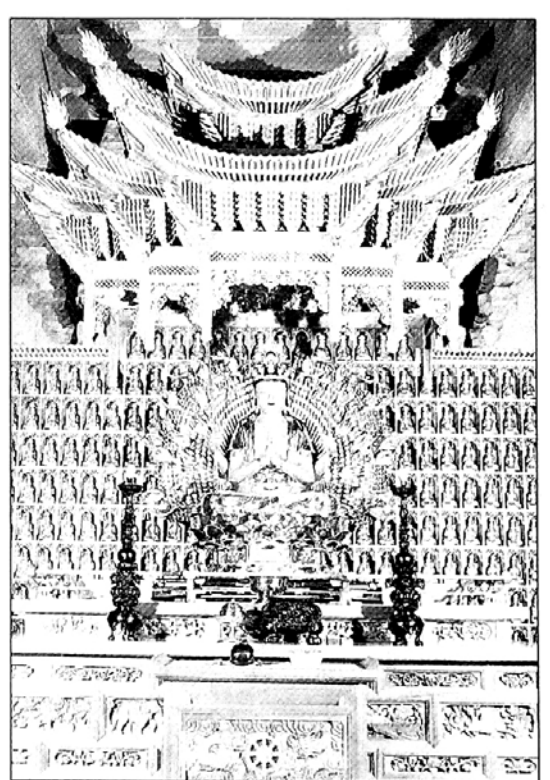
후원문의: ☎ (0591)747-0106



##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합,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 불사의 전당 불교 조각원

-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